1881-1921년 기간동안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포그롬( pogrom:대학살:러시아에서 유대 인 박해의 뜻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한 용어)은 1939년 히틀러가 유대인에게 자행한 세기적 인 대학살(Holocaust)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러시아의 박해를 피하여, 왜 유대인들은 하나 님께서 그들 민족에게 주신 가나안땅(팔레스타인)으로 가지않고 과거에 핍박을 당했던 서 유럽으로 다시 돌아간 것일까?! 그들에게는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 앙이 없었기 때문이 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백성은 사망과 저주의 길 에서 방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일부 유대인들은 그들 조상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갔 고 그들은 그곳에서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피할 수 있었다.   
  
1933년 1월 독일의 총리가 된 아돌프 히틀러는 1차세계대전에서 패하고 국가적인 재정 난과 실의에 빠져있는 독일국민을 다시 이르켜 세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했 다. 히틀러는 그 대안으로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유f럽인의 혐오대상인 유대인들을 희생양 으로 삼은 것이다. 히틀러는 게르만족(아리안)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전유럽을 게르만족 이 지배하는 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독일국민들을 부추겨서 전쟁준비 에 끌어드리는 한편, 유대인들의 재산 몰수와 말살정책을 구체화 하기 시작했다.   
히틀러는 유대인 수용소를 설치하고,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가리지 않고 모든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집결시키고 그곳에서 살게 하였다. 1938년 오스트리아를 독일에 합병 시킨 히틀러는 1939년 선전포고도 없이 폴란드를 침공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이르켰다. 유 대인 수용소는 전쟁발발과 동시에 죽음의 수용소로 변했다. 폴란드를 점령한 히틀러는 유 대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하여 폴란드 남부 비엘스코주의 소 공업도시인 아우슈비츠(폴란드 어로 '오슈비엥침')에 1940년 4월27일 첫번째 유대인 수용소를 세우고, 계속해서 수용소 를 확장하여 목욕탕 모양의 독까스 살해실과 시체보관실, 그리고 시체를 태우는 화장막 등 을 갖춘 제2,제3의 대규모 수용소를 설치하고, 독일이 점령한 유럽지역에서 강제로 체포한 유대인들을 화물차에 싫어날러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알몸으로 옷을 벗긴채 까스실에서 살해했다.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유대인들은 노동력이 없는 어린이와 노약자들을 분리하여 먼저 살 해하고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수용소 내에서 노동력을 착차취한후 살해했다. 노동력 착 취는 유대인 살해작업을 유대인에게 시켰고, 시체를 소각하여 아스팔트 재료와 비료를 만 드는 일과, 사체에서 금이빨이나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빼내는 일,여자들의 시체에서 머리 를 잘라내어 재활용품으로 만드는일 등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일들을 유대 인들에게 시켰다. 어떤 유대인 의사는 먼저 죽임을 당한 아내와 손자의 시신으로 만드러진 아스팔트 재료로 도로포장 공사를 해야하는 기막힌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죽엄의 공장이 매일 2만5천명의 유대인들을 학살 했지만 유대인들이 대량으로 들어와 수용시설이 부족할 때는 웅덩이를 크게 파고 그 속으로 밀어넣은후 기관총으로 난사하여 시체의 더미 를 쌓는 가혹한 짓도 서슴없이 하였다고 한다.   
  
1939년 홀로코스트가 시작될 당시 유럽의 유대인 인구가 대략 900만명이였으나 전쟁이 끝난후 유대인 수는 불과 300만 정도 였다니까 히틀러의 손에 600만 유대인이 살해된 것이 다. 이같이 대규모 유대인들이 인권을 유린당하는 동안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홀로코스트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독일의 개신교는 국가로 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입장이 였기 때문에 정부의 불의한 정책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독일의 교회는 국가정책에 동조하고 있었다.   
1933년 의회에서 통과된 아리안 법령((Arian Clause)에 따라 교회에서 유대인은 물론 유대 인과 친척관계에 있는 독일인도 성직자로 안수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유대인의 말살정책 에 능동적으로 가담했다. 독일의 교회가 유대인 말살정책에 능동적으로 가담했음에도 불구 하고 본헤퍼 목사만은 유일하게 유대인 말살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다가 감옥에 투 옥되어 정부의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순교하였다. 그러나 유럽 여러나라 교회들은 홀로코 스트에 대해서 동조 내지 외면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600만이라는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이 살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세계 어느 나라나 교회의 이름으로 유대인의 인권유린의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문제삼는 일이 없었다. 물론 개인적으 로는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구출해 낸 크리스챤들의 사례는 더러 있었지만 세계 교회들 은 홀로코스트를 외면하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홀로코스트를 기독교적인 사건이라 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마틴루터를 비롯한 과거 교회들이 홀로코스트가 일어나도록 토 양을 조성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지금도 홀로코스트를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교회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 "600만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동안 교회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나 마 이 질문은 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질문이며, 대다수의 유 대인들은 여전히 기독교는 유대인을 핍박하는 사악한 종교이며, 교회는 사랑을 말하면서 유대인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중에는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 크리스마스 이브에 독일 경비병들이 부르던 찬송과 크리스마스 캐롤이 저승사자들이 죽음을 재촉하는 장송곡으로 들렸던 기억 이, 크리스챤들이 찬송을 부를때마다 아우슈비츠의수용소를 떠올리게 한다는 뼈아푼 고백 은 우리 크리스챤들에게는 더많은 회개의 눈물과 기도가 그리고 유대인의 가슴에 각인되 어 있는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 실히 깨닫게 한다. 홀로코스트를 외면했던 우리 기독교 선조들의 잘못을 우리시대에는 결 코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홀로코스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살 시키려는 사탄이 만드러낸 재앙이였지만, 하나님 께서는 사탄이 만들어낸 재앙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임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홀 로코스트를 겪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국가건설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이스라엘 건국 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하게 되었고, 홀로코스트를 목격한 세계 열방들은 유대인들 을 위한 국가건설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게 되었다. 결국 홀로코스트는 유대인들에게는 지울수 없는 대 재앙이 였음이 분명하지만 반면에 유대 인의 나라 이스라엘을 탄생시키는 산모의 고통이기도 하였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 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 통하는 즉시 아들을 생산하였도다."(사66:8)  
  
참고문헌  
\*Henry C. Lea, A History of the Inquisition in Spain, 4 vols.(New york:Harbor,1955.)  
\*Henry A.F. Kamen, The Spanish Inquisiton(New York:The American Library,1966